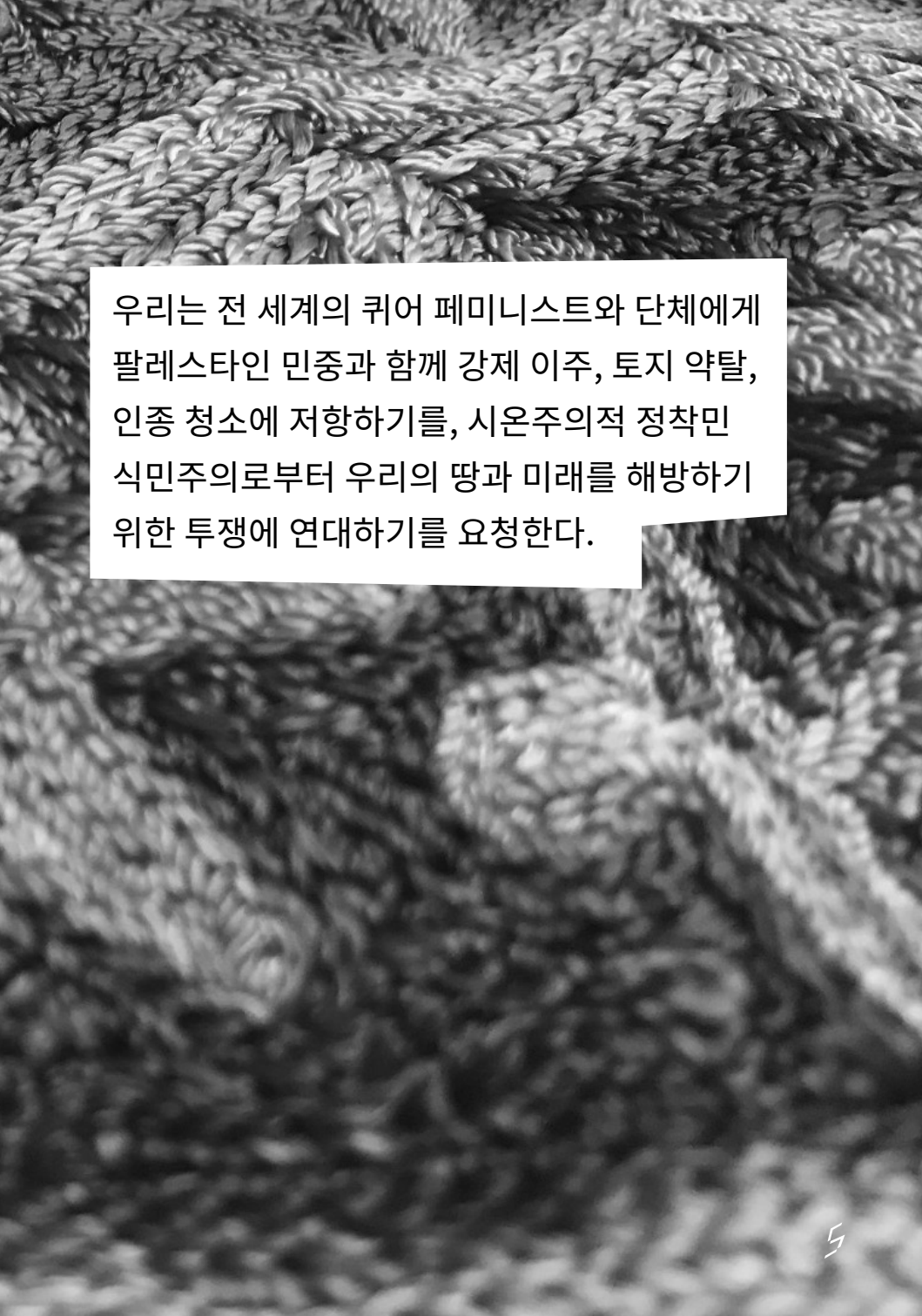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퀴어의 외침

당신들 중 우리 팔레스타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말라에서 열리는 늦은 밤 퀴어 파티, 성서시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에서 열리는 레이브 파티를 아나요? 히잡 쓴 레즈비언, 후프 귀걸이를 한 게이, 즐거움에 차 자유롭게 춤추는 팔레스타인 트랜스를 압니까? 우리는 가족보다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합니다.** 언제나요. 서구 사회가 선전하는 명예살인보다 이스라엘의 총이나 폭탄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100배는 높죠. 나는 백인 기독교 미국인들이 자녀가 게이가 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걸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종교의 퀴어들이 겪는 **퀴어혐오를 무기 삼아** 팔레스타인의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기독교인과 무슬림, 퀴어, 이성애자, 그러니까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학살을 정당화**합니다.

자히어 수보(Zaheer Suboh)

퀴어 팔레스타인인 해방 요구 요약본

우리는 노동자, 학생, 농민, 부모로서, 팔레스타인인으로서, 퀴어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이 요구를 쓴다. 10월 7일 이후 우리는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가속화되는 집단학살을 목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행동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에 있는 생존자들의 처지는 점점 더 참혹해지고 있다. 이 학살 행위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도자들의 경제적·군사적·외교적·정치적 지원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자유, 다양성, 인권을 존중하며, '극악무도하고' 억압적인 사회와 싸우고 있다고 선전함으로써 서구 사회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이스라엘 총리는 "빛의 아이들과 어둠의 아이들 사이에, 인간성과 야만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에 대한 시온주의적 지배에는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퀴어성을 무기로 삼아 전쟁과 식민지 탄압을 정당화한다. 마치 그들의 폭탄, 분리 장벽, 총, 칼, 불도저가 성적 지향과 젠더에 따라 공격 대상을 선별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퀴어로서 겪는 폭력이 우리 공동체의 악마화와 비인간화를 위해, 특히 제국주의적 집단학살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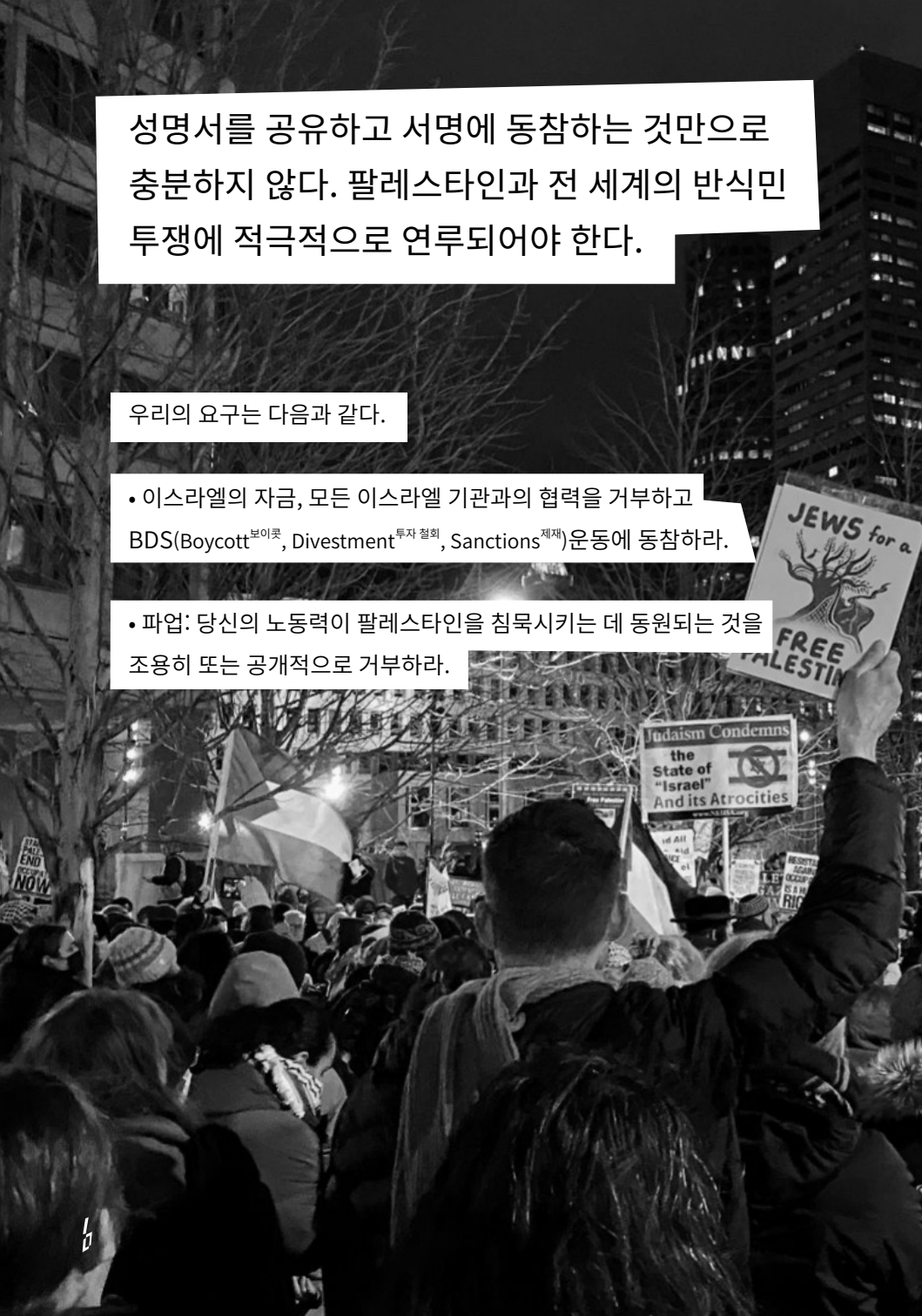
우리는 서로 연결된 억압의 체계와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를 억압하는 인종차별적, 자본주의적, 파시스트적, 제국주의적 구조를 분쇄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퀴어 연대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전 세계의 퀴어 페미니스트와 단체에게 팔레스타인 민중과 함께 강제 이주, 토지 약탈, 인종 청소에 저항하기를, 시온주의적 정착민 식민주의로부터 우리의 땅과 미래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를 요청한다.

성명서를 공유하고 서명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팔레스타인과 전 세계의 반식민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루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이스라엘의 자금, 모든 이스라엘 기관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BDS(Boycott[보이콧], Divestment[투자 철회], Sanctions[제재])운동에 동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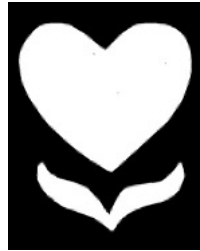
• 파업: 당신의 노동력이 팔레스타인을 침묵시키는 데 동원되는 것을 조용히 또는 공개적으로 거부하라.

• 수십 년간 퀴어들이 해왔던 행동을 하라. 이제는 팔레스타인의 서사를 되찾아야 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집단학살이며 이스라엘은 정착민 식민주의다. 팔레스타인은 군사적으로 점령당했으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 지역 대표자들에게 연락해 집단학살에 대한 자금 지원,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외교적·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라. 팔레스타인과의 연대가 범죄화되고,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투사되는 것에 반대하라.

• 주요 도로를 폐쇄하라. 지역의 중심역에서 농성 시위를 조직하라. 물류 흐름을 방해하라.

휴전 요구는 이스라엘이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첫 단계다.
우리는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시온주의적 정착민
식민주의의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

퀴어 팔레스타인인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부다. 우리는 말한다.
중무장된 예루살렘 골목에서 초토화된 후와라의 땅, 자파의 감시받는 거리,
가자지구의 분리 장벽을 가로지르는 곳까지,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이 글의 전문, 서명자, 번역본은 queersinpalestine.noblogs.org에서 볼 수 있다.

THERE'S NO PRIDE IN OCCUPATION

אין גאווה בכיבוש

게이 여행(이거나 음악이 모두를 하나로 모았거나)

카일 카레로 로페즈(Kyle Carrero Lopez)

정착민 식민지로 떠난
B의 여행이 게이들은 궁금하다.

뭐라 해야 할지? 그가 말했다.
그곳은 내가 사는 정착민 식민지와

아주 비슷해, 하지만 멋들어진 사막 분위기.
그곳 거리 생활은 환상적이었어.

도시의 무지개 깃발들은 물고기 떼처럼
풍부하고 활기차게,

측풍 속에서 능란하게 움직이며,
아가미들의 방패가 거대한 하나의 아가미로 변했다.

B는 검문소를 미끄러져 지나가고,
계속해서 지나가고,

그때마다 다른 시대의 마돈나를 연기한다.
도시 곳곳, 남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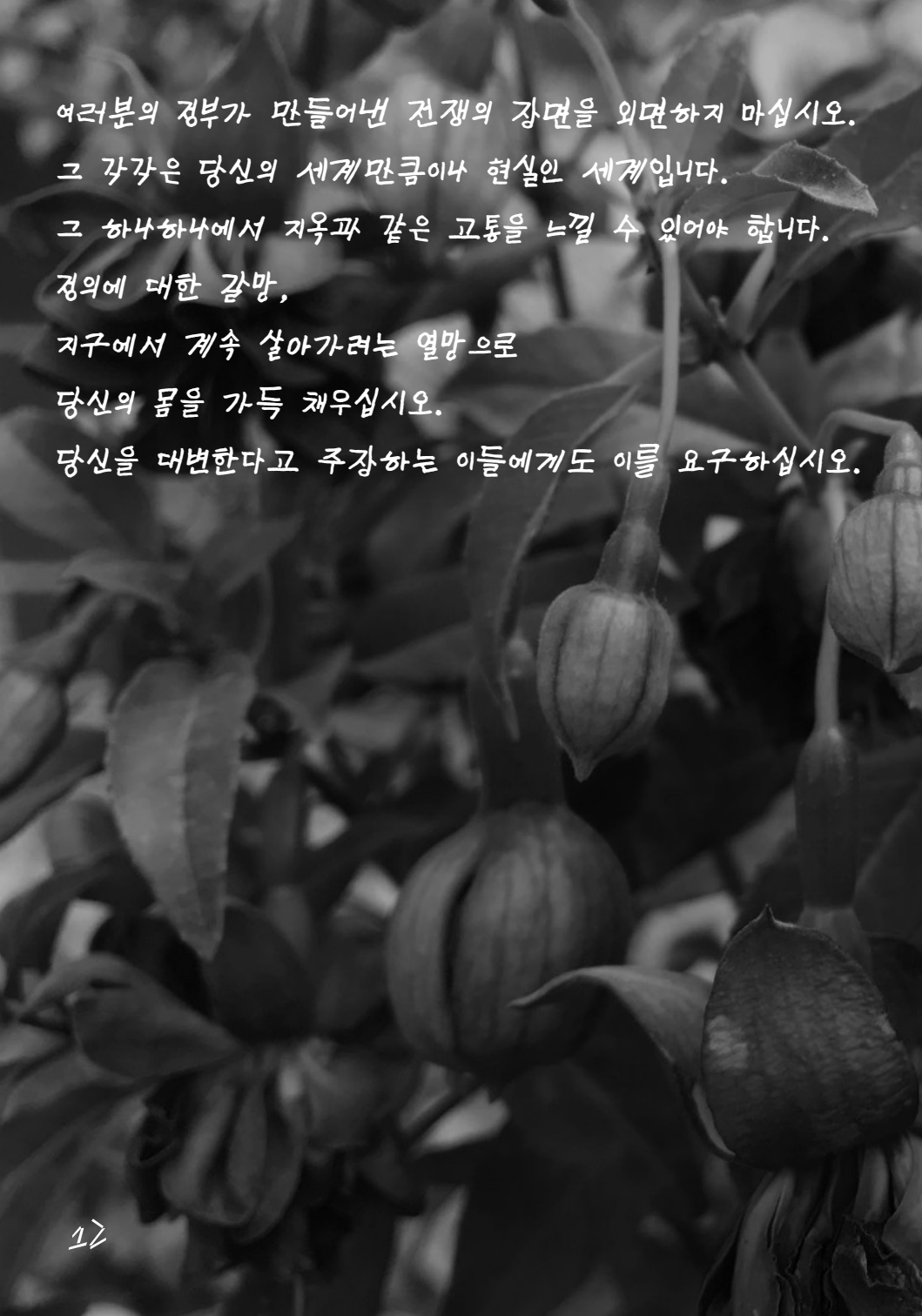
손을 잡지 않고 미소를 짓고, 해가 잘 드는
고층 건물 위에서, 생각은 제쳐두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누가
아래에 있든지, 매일 밤이 파티였다.

B가 클럽에서 만난 트윙크는
하네스를 차고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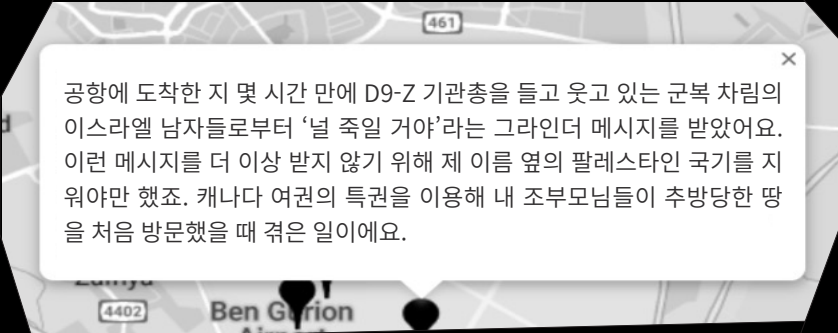
우리가 살아 있어 행운이야
몰리의 영향 아래에서 붉은 불빛 아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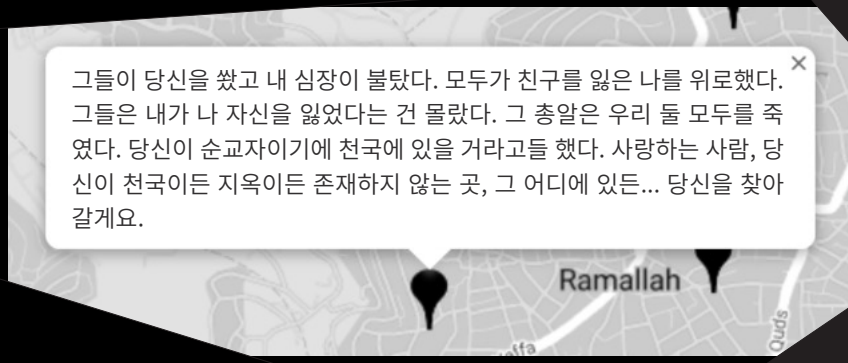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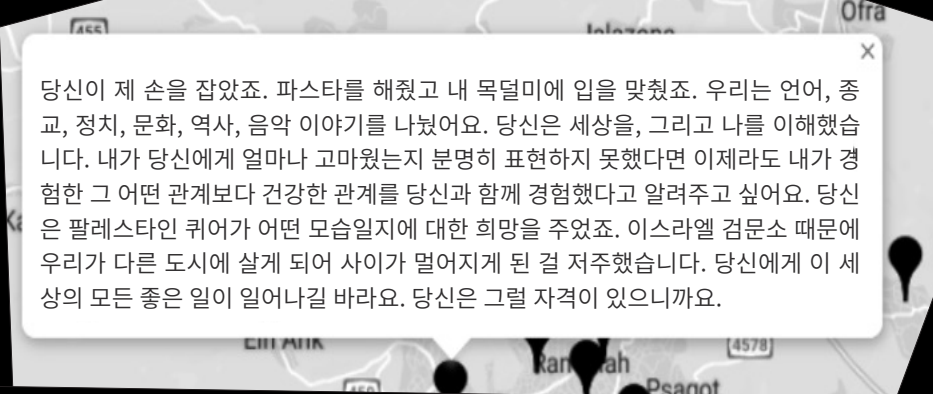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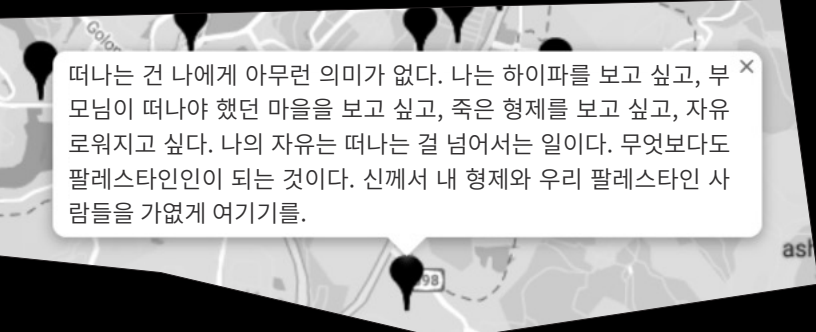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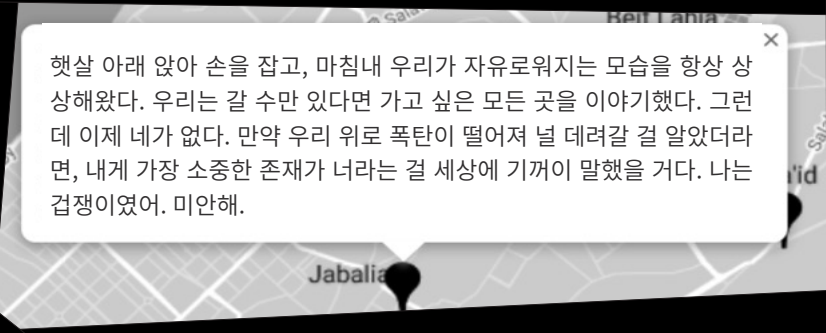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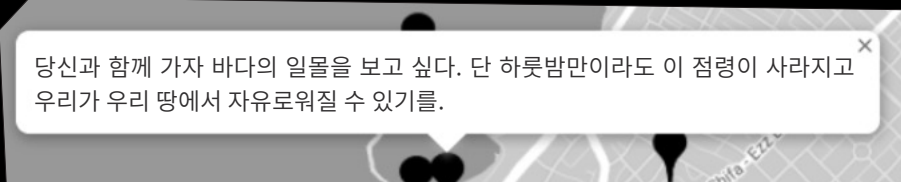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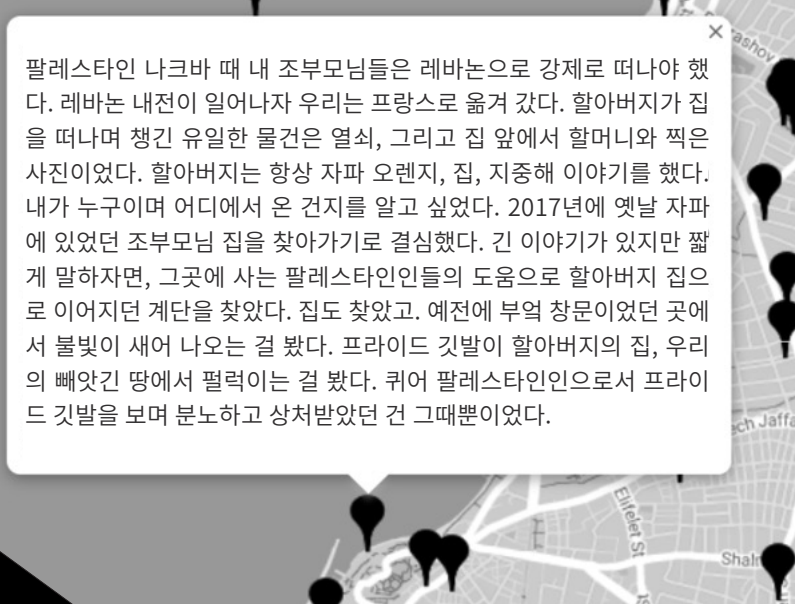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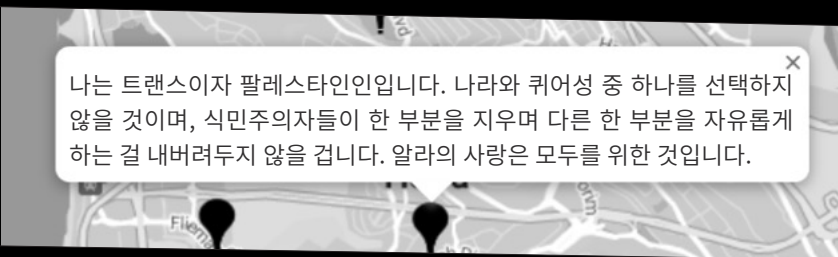
천장 아래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래에서

그리고 저기, 스모그처럼,
게이혐오가 공기를 감싸지 않는 곳에서.

근데 퀴어 하나가 계속 끼어들었다.
바깥의 퀴어들도 있어, 그가 시작했다,

최루탄을 맞고,
자기방어라며 총에 맞는 퀴어들이야

클럽 퀴어들이 어떤 탱크를 입을지
어떤 크로스백을 멜지 결정하는 동안.

그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EDM은 더 크게

더 크게 플레이되었다,
DJ가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원문 jewishcurrents.org/gay-travel-or-music-makes-the-people-come-together

여러분의 정부가 만들어낸 전쟁의 장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각각은 당신의 세계만큼이나 현실인 세계입니다.
그 하나하나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려는 열망으로
당신의 몸을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이를 요구하십시오.

지도 위에 적힌 글은 물리적 공간과 관련된 퀴어 경험 디지털 아카이빙 협업 프로젝트 '퀴어링 더 맵(queeringthemap.com)'에 익명으로 제출된 내용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D9-Z 기관총을 들고 웃고 있는 군복 차림의 이스라엘 남자들로부터 '널 죽일 거야'라는 그라인더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런 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 제 이름 옆의 팔레스타인 국기를 지워야만 했죠. 캐나다 여권의 특권을 이용해 내 조부모님들이 추방당한 땅을 처음 방문했을 때 겪은 일이에요.

그들이 당신을 쐈고 내 심장이 불탔다. 모두가 친구를 잃은 나를 위로했다. 그들은 내가 나 자신을 잃었다는 건 몰랐다. 그 총알은 우리 둘 모두를 죽였다. 당신이 순교자이기에 천국에 있을 거라고들 했다.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존재하지 않는 곳, 그 어디에 있든... 당신을 찾아갈게요.

당신이 제 손을 잡았죠. 파스타를 해줬고 내 목덜미에 입을 맞췄죠. 우리는 언어, 종교, 정치, 문화, 역사, 음악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은 세상을, 그리고 나를 이해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분명히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관계보다 건강한 관계를 당신과 함께 경험했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당신은 팔레스타인 퀴어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희망을 주었죠. 이스라엘 검문소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도시에 살게 되어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걸 저주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떠나는 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하이파를 보고 싶고, 부모님이 떠나야 했던 마을을 보고 싶고, 죽은 형제를 보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의 자유는 떠나는 걸 넘어서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인이 되는 것이다. 신께서 내 형제와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기를.

햇살 아래 앉아 손을 잡고, 마침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항상 상상해왔다. 우리는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모든 곳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없다. 만약 우리 위로 폭탄이 떨어져 널 데려갈 걸 알았더라면,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너라는 걸 세상에 기꺼이 말했을 거다. 나는 겁쟁이였어. 미안해.

당신과 함께 가자 바다의 일몰을 보고 싶다. 단 하룻밤만이라도 이 점령이 사라지고 우리가 우리 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팔레스타인 나크바 때 내 조부모님들은 레바논으로 강제로 떠나야 했다. 레바논 내전이 일어나자 우리는 프랑스로 옮겨 갔다. 할아버지가 집을 떠나며 챙긴 유일한 물건은 열쇠, 그리고 집 앞에서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자파 오렌지, 집, 지중해 이야기를 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건지를 알고 싶었다. 2017년에 옛날 자파에 있었던 조부모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긴 이야기가 있지만 짧게 말하자면, 그곳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도움으로 할아버지 집으로 이어지던 계단을 찾았다. 집도 찾았고. 예전에 부엌 창문이었던 곳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봤다. 프라이드 깃발이 할아버지의 집, 우리의 빼앗긴 땅에서 펄럭이는 걸 봤다. 퀴어 팔레스타인인으로서 프라이드 깃발을 보며 분노하고 상처받았던 건 그때뿐이었다.

나는 트랜스이자 팔레스타인인입니다. 나라와 퀴어성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식민주의자들이 한 부분을 지우며 다른 한 부분을 자유롭게 하는 걸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알라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기억을 남기고 싶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그 남자에게 키스하지 않았던 건데, 이틀 전에 그 사람이 죽었어.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했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를 봤을 때도 부끄러워서 키스를 못했어. 근데 그가 폭격으로 죽었어. 나의 커다란 일부분도 죽고, 곧 나도 죽게 되겠지. 유누스, 천국에서 네게 입 맞출게.

한 미국 유대인 퀴어의 말: ‘갈등’ 상황에서 한쪽이 상대의 물, 식량, 전기, 인터넷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면, 한쪽이 매년 3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군사 자금을 받는 동안 다른 한쪽이 갈 곳 없이 강제로 쫓겨난다면 그건 ‘갈등’이 아니다. 절멸이다.

매트 번스타인(Matt Bernstein)

프로파간다를 넘어: 식민지 폭력으로서 핑크워싱 요약본

alQaws

10년 전,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권리의 언어를 이용해 팔레스타인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가로막은 것을 설명하고자 ‘핑크워싱(pinkwashing)’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이스라엘 여행 가이드와 홍보 영상은 텔아비브 해변을 게이 친화적인 휴가지로 광고한다. 게이 장교를 공개적으로 포용하는 이스라엘 점령군은 자유롭고 진취적인 태도의 증거처럼 쓰이고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유주의적이고 ‘현대적인’ 국가로 리브랜딩하려는 지속적인 국제적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핑크워싱이 떠올랐다.

이스라엘은 게이 관광을 홍보함으로써 전 세계 퀴어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고, 팔레스타인 투쟁과 퀴어 커뮤니티의 연대를 차단하려고 한다.

‘게이 친화적 이스라엘’이라는 광고는 팔레스타인인들(더 나아가 아랍인들)을 성적으로 후퇴한 존재이자 연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묘사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인종주의와 이슬람 혐오로부터 비롯되었다.

‘프로파간다’라는 용어로는 핑크워싱의 진정한 효과를 포착할 수 없다. 핑크워싱을 식민지 폭력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을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제거한다

1. 점령, 봉쇄 등 군사적 폭력
2. 아파르트헤이트(인종에 기반한 차별 및 분리 정책) 법체계
3. 난민의 귀환권 부정
4. 팔레스타인인 사이의 심리적 분열 조장

바로 여기에 핑크워싱이 개입한다! 핑크워싱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성적 다양성이 이질적인 개념이라는 인종차별적 관념을 강화한다. 이로 인해 퀴어 팔레스타인인들은 자기 경험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퀴어일 수는 있지만 팔레스타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팔레스타인인일 수는 있지만 퀴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말이다.

내재화된 핑크워싱은 퀴어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스라엘(및 서구 사회)과 연관시키는 그릇된 믿음을 강화하고 절망을 부추겨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축소한다.

핑크워싱은 팔레스타인 퀴어들에게 개인적 해방(결코 집단적 해방은 아님)은 오직 자신의 공동체를 벗어나 식민주의자들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도시에서 '퀴어 피난처'를 찾는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는 (퀴어, 트랜스 등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파괴를 전제하는 식민국가의 실제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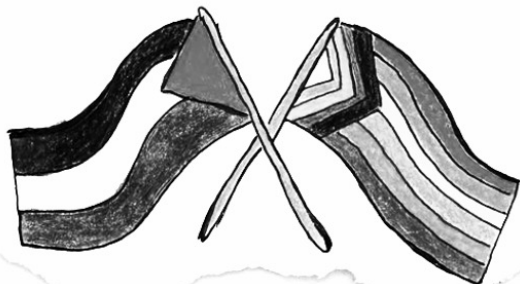
‘구원자 이스라엘’ 신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핑크워싱이 팔레스타인 퀴어 운동을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퀴어 운동은 반식민주의 투쟁과 가부장제 및 자본주의 억압에 대한 투쟁을 함께 펼쳐나간다. 그리고 이 운동은 자신을 팔레스타인 사회의 필수적인 일부로 인식한다. 우리는 자신과 사회 사이의 분열을 거부한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투쟁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주장한다.

이것이 전 세계 활동가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반(反) 핑크워싱 활동이란

- 팔레스타인 퀴어의 요구를 중심을 두어야 한다.
- 핑크워싱을 정착민 식민주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 여러 형태의 식민주의를 젠더 및 성적 억압과 연결 지어야 한다.

원문
alQaws, “Beyond Propaganda: Pinkwashing as Colonial Violence”
https://www.alqaws.org/articles/Beyond-Propaganda-Pinkwashing-as-Colonial-Violence?category_id=0

ALL SYSTEMS OF OPPRESSION ARE BOUND TO EACHOTHER

THERE CANNOT BE QUEER LIBERATION WITHOUT THE LIBERATION OF ALL PEOPLE

@SAMMYRABBIT

모든 억압체계는 서로 얽혀 있다.

모든 사람의 해방 없이는

퀴어 해방도 없다.

팔레스타인을 향한 폭력에도 침묵이 이어지고, 자긍심의 달은 나를 고립시킨다

야잔 자자(Yazan Zahzah)

화면에서 열정이 뿜어져 나온다. 쏟아지는 무지개 광고를 처음 보면, 피로와 짜증이 밀려와 고통스럽다. 자긍심의 달이 다시 돌아왔다.

시온주의적 군사화로 인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폭력적으로 추방된 가족의 일원이자 **팔레스타인인 트랜스로서** 자긍심은 곧 고립이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계속되는 폭력에 대한 **침묵** 속에 찾아온 자긍심의 달에는 더욱 그렇다. 나를 밀어낸 곳의 주변부(margins)가 곧 나의 고향이다. 팔레스타인은 장소상실(placelessness)의 전형이자 전 세계 투쟁의 심장이다. 팔레스타인은 가장 퀴어한 곳이다.

매년 6월이면 '자긍심'을 기념하는데, 이는 1969년 스톤월 항쟁에서 비롯되었다. 인종, 이주, 젠더,계급, 민족 투쟁의 교차를 다루며 **급진적 퀴어 정치를 종합한** 실비아 리베라(Sylvia Riveria), 마샤 P. 존슨(Marsha P. Johnson) 등 **라티넥스, 흑인 지도자들의 유산**을 기리는 날이다. 하지만 백인, 시스젠더, 중산층 게이 남성들의 트랜스 혐오,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계급주의로 인해 이 수사의 잠재력은 화이트워싱(whitewashing)을 겪었고, 많은 이들이 오늘날 보고 있는 것처럼 운동(movement)은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를 향한 피상적 열망으로 변질되었다.

미국 대중문화에서 페미니즘과 LGBT 수사는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과 하비 밀크(Harvey Milk) 같은 인물들을 내세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찬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억압받는 공동체가 정의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치 체제보다 앞서 존재했던 **선주민, 흑인, 남반구의 수 세기에 걸친 이념들을 전유**하곤 한다.

둘째,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폭력 그 자체를 야기한 구조들을 예외화하고 면책**한다.

미국은 여성과 LGBTQ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의 대상을 **선별**한다. 2016년 펄스 총격 사건 이후, 수많은 무지개 경찰차가 퍼레이드에 밀어닥쳤고 트랜스젠더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팔레스타인인 여성 누르 살만(Noor Salman)은 자신이 가정폭력 생존자라고 반복적으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투옥되었다. 또한 펄스 사건은 사회 서비스를 이용해 정치적 반체제 성향을 보이는 **무슬림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반(反) 테러 프로그램인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을 촉발했다.

즉, 조지 W.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면, 그것을 **확장**한 이는 '탈인종주의(post-racist)'의 아이콘 버락 오바마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후속 정책 해체를 약속한 조 바이든은 무슬림의 지지를 얻고 당선되었지만, 이후 바이든은 자금을 대거 투입해 이 프로그램의 세 번째 리브랜딩을 지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진보 이념에는 '핑크워싱'이라 불리는 기만적인 층위가 스며들어 있다. **그들은 페미니스트와 LGBTQ의 서사를 동원해 가자지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나는 시온주의적 군사화의 기준으로 측정된 진보가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우지 에벤(Uzi Even)은 호모내셔널리즘이 이스라엘의 기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간과된 사례이다. 에벤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 국가안보의 필수 영역이었던 핵 연구자였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진행한 '성공적인' '게이 권리' 투쟁은 **군대**의 LGBTQ 인력 포용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에 관한 핵심 인사였기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게이 아이콘으로 칭송되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틴 벡(Kristin Beck)은 트랜스 역할 모델로 그려진다. 광범위한 정보를 가진 특수부대원으로 장기간 복무한 벡의 정당성이 '진보'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그녀의 **군국주의적 애국심**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벡은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 고발자이자 트랜스인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을 비난한 바 있는데, 이는 트랜스 수용이 결국 조건부임을 드러낸다.

1948년, 팔레스타인에서 수백 개의 마을이 파괴되고 **약 8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강제 추방**되었던 끔찍한 학살의 절정, **나크바(Nakba, 1948년 5월 14일) 직후 '자긍심의 달'이 열린다**.

나크사(Naksa)의 날과도 겹친다. 나크사는 1967년에 아랍 및 팔레스타인 저항군이 시온주의자들의 팔레스타인 군사화를 막기 위해 6일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이스라엘에 패배하면서 **6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추가로 발생한 사건**이다.

1967년 전쟁은 이스라엘이 세계 정치 및 경제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아파르트헤이트** 절정기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과 협력한 역사를 바탕으로 **무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73번째 나크바의 날은 라마단 성월의 끝을 기념하는 공휴일인 이드(Eid)와 같은 주에 열렸다. 라마단은 영적 연결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시간이지만, 올해 이드 축제는 셰이크 자라(Sheikh Jarrah)와 실완(Silwan), 알아크사 사원(Al Aqsa Mosque),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탄압의 엄중함으로 인해 약화되었다.

이스라엘은 인권이 결여된 지역을 밝히는 등불로 오인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페미니즘, '성소수자 친화적' 관광 산업이 **군사주의, 억압, 인종주의**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주목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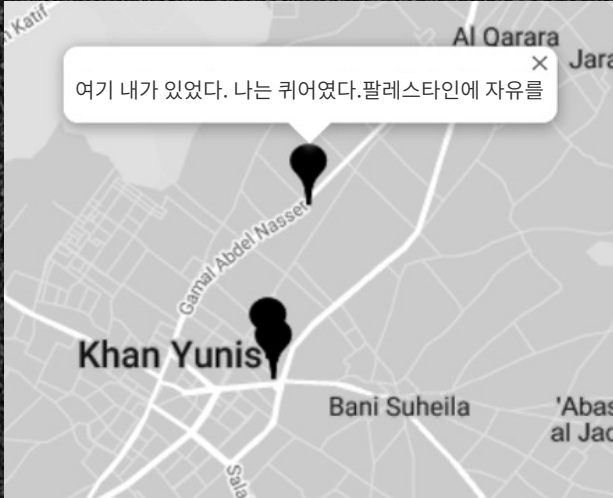
나는 퀴어 아랍인으로서 진보라는 가면을 쓴 국내 시온주의자들의 억압을 삼키는 동시에, 게이 탄산음료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들에 잠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모순이 아니다. **그들의 '자긍심'은 타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장소상실 속에서 장소를 찾는다. 우리의 땅, 우리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닦아온 운동의 길에서 자리를 찾는다.

원문
Yazan Zahzah, "Pride month is isolating for me as silence about violence in Palestine continues"
https://www.sandiegouniontribune.com/opinion/commentary/story/2021-06-28/opinion-trans-palestinian-pride-month-isolation

더 읽어보기

- 퀴어 팔레스타인인 해방 요구
  https://queersinpalestine.noblogs.org/퀴어-팔레스타인인-해방-요구/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활동 기록
  https://han.gl/TgDjN
- Palestine as a Queer Struggle
  https://uscpr.org/activist-resource/grassroots-advocacy-toolkit/palestine-as-a-queer- struggle/
- Boycott, Divestment, Sanctions: Say No to Pinkwashing
  https://bdsmovement.net/pinkwashing
- What is pinkwashing?
  https://shado-mag.com/know/what-is-pinkwashing/
- Decolonize Palestine
  https://decolonizepalestine.com
- Palestinian Feminist Collective’s action toolkit
  https://palestinianfeministcollective.org/all-out-for-palestine/
- Solidarity with Palestine - A Radical Black Feminist Mandate: A Reading List
  https://www.blackwomenradicals.com/blog-feed/black-feminist-perspectives-on-palestine-a-reading-list
- A Palestinian trans woman’s story peels away Israel’s pinkwashing veil
  https://www.972mag.com/trans-lgbtq-palestinian-israel-pinkwashing/
- All Out for Palestine: Against Queer Silence and Complicity
  https://www.midnightsunmag.ca/all-out-for-palestine-against-queer-silence-and-complicity/
- The queer Israeli youth taking a stand against pinkwashing
  https://www.972mag.com/queer-israeli-youth-pinkwashing-palestinians/
- Queers speak out: Why do I support Palestine?
  https://en.velvele.net/2023/11/02/queers-speak-out-why-i-support-palestine/
- #NoPrideInApartheid Toolkit
  https://uscpr.org/NoPrideInApartheid

이 진에 담길 자료를 모으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

한국어판

번역 | 김보영, 허주영

교정교열 | 김깃

한국어판은 2024년 7월 1일부터 contact-surface.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판은 pleasurepie.org/printables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